

출판

제원스님 에세이집 '그래서 독신...' 출간

불교방송의 인기 시사프로 '불교독자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김복직자관장)이 에세이집(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까)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제원스님은 고적인 산사의 산길을 담은 정감어린 글과 큰 정치를 위해서는 군살을 빼야한다는 다정한 충고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옆에 있는 행복찾기의 글, 무수유의 가치 등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언어를 통해 일깨워주고 있다. 도서출판 이북 펴냄, 6천원.

임현담씨 구도기행 '히말라야' 출간

'인도 미치광이' 임현담씨의 구도기행문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가 효형출판사에서 나왔다. 방사선과 의사이자 저자가 '삼과 죽음의 땅' 인도를 네 차례나 떠돌며 느낀 점을 서술한 종교철학적 구도기행서인 점에서 단순한 여행기 또는 성지순례기와 차별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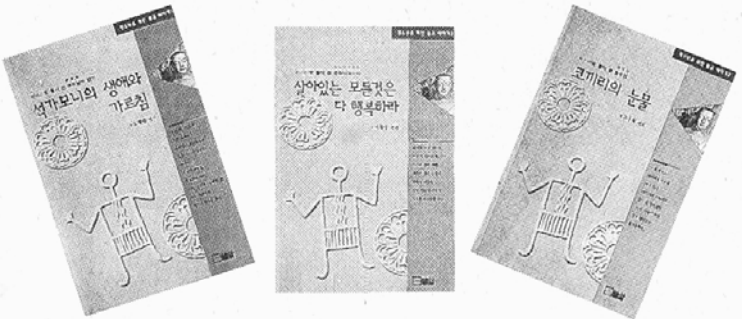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인 집기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2	어린이 불교	능란 외	영경진흥회
3	알기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4	불교성전	권성희 외	영결원
5	숨겨진 깨어나기	탁낙한	불지사
6	선 100문100답	진제	파란나라
7	42장정	라즈니쉬	성하
8	미라타왕궁경	이시카비요시오	현암사
9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타	효림
10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구입문의: (02)737-0695

불교는 더이상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며, 결코 어려워서는 안된다. 불교의 중심은 붓다의 삶이며,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붓다의 이야기가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밀알에서 펴낸 '청소년을 위한 불교이야기'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쉽게 붓다의 종교적 철학적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꾸며 '불교는 어렵다'라는 관념을 재미있는 불교로 바꾸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불교 시리즈' 밀알서 출판

"신세대에게 부처님 말씀을"

청소년 불서가 빈약한 불교출판의 현실에서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1차로 펴낸 시리즈는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 <코끼리의 눈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등 3권. 권서는 모두 중립학교 교본사로 활용하고 있는 김영중(명성여고) 교우익(능인고) 이학송씨(광동여고)이다. 교육현장에서 매일 학생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직접하는 대신 경쟁 속에서 건져올린 빛나는 진리의

"불교는 어렵다" 고정 관념 탈피 '재미있는 불교'로 인식전환 계기

세계로 눈물나게 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은 부처님의 출생에서부터 열반까지의 생애를 일대기적으로 기술한 전기. '위대한 탄생'부터 '잠입한 열반'까지 모두 12장으로 구성하고 일화와 사건들을 적절히 배치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흥미있게 이해하도록 했다.

라 할 수 있다. 각장마다 스타니파타의 경구를 인용하고, 이어 그에 관한 예화나 우화 계속 등이 소개되면서 삶에 대한 성찰로 이끌고 있다.

이미 부처님 일대기와 현우경 스타니파타를 내용으로 하는 불서출판은 여러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이전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밀알은 20권 분량으로 '청소년 불교이야기' 시리즈를 출판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만다라총서 20권 나왔다

불교시대사, '서양에서 본 불교' 펴내

불교시대사(대표 김병무)의 불교학 기획시리즈 '만다라총서'가 92년 4월 <세계의 종교>를 첫권으로 펴낸 이후 최근 <서양에서 본 불교>를 펴내

20권을 기록했다. 불교 또는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의 체계적 정리를 기획목적으로 펴낸 총서 가운데 <세계의 종교> <현대인의 불교학> <대승불교총설>은 원광대 감신대 등에서 교재로 사용, 불교학·종교학 연구에 기여했다. 불교시대사는 계속해서 계율과 법화 정도 열반등 각 종파의 사상을 고찰하는 시리즈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생명민회 토론회' 발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크리스찬아카데미 생태사회연구소 등 범종교 및 환경운동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에서는 <생명민회 토론

순서	도서명	저자	역자
1	세계의 종교	유다 유타카	진철승
2	부처님의 생애	미야키카 유소우	안양규
3	불교사의 전개	와타베 소오코	한경수
4	근본불교 이해	마스다나 후미오	홍사성
5	대승불교총설	가나오카 슈유	안중철
6	불교사회경제학	오노 신조	박경준·이영근
7	불교사회복지학	모리나가 미쓰노부	이혜숙
8	현대인의 불교학	아카구제	정병조
9	부처님의 가르침	마스다나 후미오	권장부
10	원시불교의 실천철학	와즈지 데스루우	안승준
11	불교의리개론	가네코 다이이치	고명석
12	세친의심과 사상	사이구사 미쓰요시	송인숙
13	종수의 삼과 사상	나카무라 하지메	이재호
14	회음불교의 세계	프란시스 록	문찬주
15	새롭게 쓴 선종사	오키모토 가즈미	사토모 시게키
16	불교정치사회학	나카무라 하지메	차차석
17	상좌불교의 가르침	뽏다다사	강진아
18	현대와 선	니시타니 게이치 외	김호규
19	불교의 효 유훈의 효	마치하라 료슈	목경배
20	서양에서 본 불교	마에시마 히데오	김진기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김지하씨와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씨의 의제 '농업의 생명가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 내용들이 실려 있다. 문의: 불교환경교육원(765-6324)

보르헤스 작품 세계 화엄사상이 '모티프'

"포스트모더니즘 등 20세기 중·후반의 모든 인문과학 사조는 보르헤스로부터 출발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그의 문학적 불후의 저작들로 가득차 있다. 그는 아마도 화엄경의 시·공간 상호관통의 세계관에서 문학적 아이디어를 빌어 온 것으로 '불교입문'도 저술



◇보르헤스

'알레프' 불교적 사고 녹아 '불교입문'도 저술

문학평론가 김홍근씨는 지난 9일 백화도량(상임법사 김호성)이 마련한 '스페인어 문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불교입문>이란 책을 쓴 적도 있는 보르헤스는 모든 사물의 상호관통을 강조하는 화엄경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을 잘 요약한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

53명의 선지식(善知識)에게 법을 구한 뒤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선재동자 앞에 펼쳐지는 장엄세계는 우주의 모든 사물·사건들이 그 자체에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알레프와 흡사하다는 설명이다. '20세기의 창조자'로 불리우는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주로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후, 단편소설집(픽션들)(1944

목아 박물관 2주 '불교 소품전'

미공개 유물 70여점...내달 16일까지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이 지난 12일 개관 2주년을 맞아 '불교소품' 기획전을 마련,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을 가운데 70여점의 불교관련 소품들을 7월16일까지 전시한다.



◇김영원 작 공허 에너지

이 주류를 이루며, 전비(殿碑)나 불자(佛子)등 불교의식 용구들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의 일환으로 일간(불광)과 공동주최한 '제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대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황이슬양의 대상작품을 비롯 당선작들이 전시된다.

장학기금마련 만다스님 시화전

18일까지 대전시민회관

불우청소년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만다스님의 시화전이 오는 18일까지 대전시민회관 2층 대전전시실에서 열린다. 시집 '병초의 오도승'으로 잘 알려진 만다스님의 이번 전시회에는 '성찰대중사' '오도승(悟道頌)' '무욕' 등의 시화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김영원씨 귀국전

예화랑 21일까지

인체조각가 김영원씨(법명 해연)의 제2회 상파울로 국제 비엔날레 참여 귀국전이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압구정동 예화랑에서 열린다. '작품 속에 담긴 자아를 투사시켜 외부세계와 하나되는 일체경(一體境)'을 연구자 선을 수행하고 있다'는 김영원씨는 이번 전시에서 선무(禪舞)와 조각이 혼연일체되는 작품 '공허-에너지' 등 6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불교문예' 작품공모 현대불교문학회

현대불교문학회(회장 수완스님)가 오는 8월 31일까지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인들과 불교문학 작품을 공모한다. <불교문예>신인상 작품공모는 시·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문학 부문에 걸쳐 공모되며, 당선작가는 기성문인으로 문단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02)308-9520

수안스님 서화전

24일부터 경남문화회관

경남 한산시 요사채 건립을 위한 수안스님 선서화전이 오는 24일부터 경남문화예술회관 대전전시실에서 열린다. 재단법인 한산시 불자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일화스님의 병풍, 도어가 이공한선생의 황매산 매화, 목선사 박지명선생의 금사 금강경이 한조출품된다.

할출 이색 전시회

할출을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이색전시회 '부처가 만든 부처님'이 지난 4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김찬희) 주최로 열렸다. '정토세상을 서원하며'라는 부제와 함께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살바기 아기부처부터

전통소재 그림전

경주 선재 미술관

선재미술관(경북 경주시)은 8월6일까지 우리 전통과 현대미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전통과 오늘의 작품전'을 연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양양이나 고지도 글자 무늬 등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온 작가 21명의 작품이 소개된다. 동양화가 김기창 서세옥 이종삼씨의 작품도 선보인다.

조계종의 정혜결사사 천태종의 보현결사. 고려 후기 무신정권에 대한 교종의 도전에 실재로 끝났던 불교계에서는 동시에 두 결사운동이 발생했으나 보현결사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진정국사의 호산록

허홍식 지음

13세기 천태종 결사정신 규명

<진정국사와 호산록(湖山錄)>은 고려 후기 천태종 계통의 결사인 만덕산 백련사 결사의 제4대 법주 진정국사(眞淨國師) 천착(天착)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의 시문집인(호산록)을 엮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진정국사가 살았던 13세기 천태종의 결사정신과 지성사의 단면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부분적으로 전해지는 <호산록>을 송광사본과 일지암본 등을 대조해 복원을 시도했다. 부록으로 일지암본 <호산록>을 실었다. <민족사, 1만5천원>



허홍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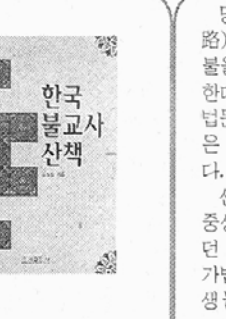
불교는 옛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현실의 기쁨과 고통과 슬픔에 어우러진 불교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교사의 과제이다. <한국불교사 산책>은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살았던 옛사람들이 현실의

한국불교사 산책

김상현 지음

선조들 삶속의 불교모습 밝혀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왔으며, 특히 불교는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제1권 한국불교사 이야기, 제2권 한국불교사 소모, 제3권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등 3권으로 구성됐다. '조선불교 사회'에서는 한국불교사 연구의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조선 후기 불교 수난과 극복, 불교인들의 개화활동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불교연구원 회보> '천태종보' 등에 연재한 글을 묶어 다소 통일성이 떨어진다. <우리출판사, 7천원>



김상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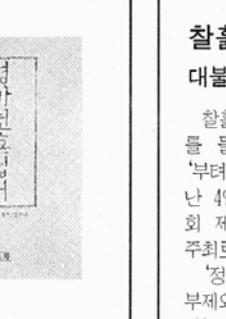
망자의 저승길(冥路)을 밝혀주는 등 불을 영가법문이라 한다. 예부터 영가법문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직접했다. 선승이라 해서 중생의 삶과 멀었던 것이 아니라 영가법문을 통해 중생들을 제도했던

영가친혼범어

석성우·김규대 엮음

선지식들 영가법문 한데 묶어

것이다. <영가친혼범어>에서는 월명사의 '제망매가(祭亡妹歌)'로 부터 백장 대각각사 근현대 한국불교를 빛냈던 경허 효봉 성철등 50여명 스님의 영가친도법문과 제문 영가법문만장 등을 어록과 여러 문집에서 가려뽑아 실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조사불교의 새로운 모습, 즉 영가의 천도까지도 선사들의 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문을 남긴 스님들의 약력과 출전을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토방, 1만5천원>



석성우·김규대 엮음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氣피부적 메달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님의 천지인의 氣로 천운의 길로 돌려놓는 氣부적입니다.

앞 (운명보살)

뒤 (피십이지상)

천운을 만나는 부적

■ 순금 3.75g
■ 순은 18.75g (순도 99.9%)
₩ 148,000

■ 정원합격부
각종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데 영험 있는 부적

■ 사업득재운부
사업번창과 재운을 풍게 하는 데 영험이 있는 부적

■ 동련무사고부
차운전사고나 공장 안전사고 건설공사 사고 등 각종사고를 방지하는 데 영험이 있는 부적

■ 순은(99.9%) 18.75g (체인포함) ₩ 48,000